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8월 18일 금요일 (음 6월 27일) 제187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16일 오후(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로 새만금이 확정되자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새만금 유치단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확정 5만여 세계청소년들 '꿈나라' 편다

2023세계잼버리대회가 대한민국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열린다.

세계스카우트연맹(World Organization of the Scout Movement, WOSM)은 16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 콘그레스센터(Baku Congress Center/BCC)에서 총회를 갖고 '대한민국 전북도 새만금'을 2023년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10면>

전북도는 막판까지 초 접전을 벌인 대회를 최종 유치하는 기쁨을 토해냈다.

전북도는 이로써 민선6기 송하진 도지사 취임 이후 광역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지난 2015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에 이어 국가 간 경쟁을 뚫고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2023세계잼버리는 2023년 8월 전북 부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서 역대 최대인 168개국 청소년 5만여명이 참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 송 지사 "전북 미래상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것"

가해 야영을 하며 'Draw your Dream'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이들 세계 청소년들은 민족과 문화,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해 국제 이해와 우애를 다지며 잼버리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새만금 세계잼버리장은 약 9.9km(약 300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대집회장과 전시관, 편의시설을 가운데 두고 이를 세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야영공간이 둘러싸는 방사형의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세계잼버리 생산 유발효과는 800억원, 부가가치 효과도 300억 원에 달하고, 1000명의 고용창출이 예측되고 있다.

또 2023년은 한국 스카우트 100년 역사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새만금이라는 대한민국 미래의 땅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무후형의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이다.

전북도는 경쟁국인 폴란드가 우리나라에 비해 1년 넘게 일찌감치 유치전을 전개한 데다 전현직 대통령과 EU 상임의장 등이 명예후원자이면서 지지를 이끌어오고 있고 폴란드를 중심으로 뿔뿔 뿜친 유럽의 회원국은 40개국인데 비해 아시아 태평양 회원국 수는 26개국으로 회원국 수마저 불리한 상황에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유치 전략을 구사했다.

전북도는 SWOT 분석을 통해 폴란드와의 비교우위를 철저히 파악한 뒤 아랍 19개국을 비롯해 아프리카(40개국)와 남미(34개국)가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선호도가 높다고 파악하고,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한 전북도 유치단을 대륙별로 구성해 전략적으로

집중 공략에 나선 것이 이번 유치경쟁에서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전북도유치단은 특히 이제까지 100여년간의 잼버리 역사에서 개최지 모두 자연지형과 역사를 소재로 진행해 왔지만 대한민국 새만금은 이 같은 장점 뿐 아니라 IT강국 강점을 살려 모든 프로그램을 독자적인 웹을 개발하여 운영자와 참가자들이 실시간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스마트잼버리로 차별화한 점을 강조, 표심을 자극해 효과를 얻었다.

전북도가 올해 들어서만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 FIFA U-20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행사를 매우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도 가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유치단이 1년 6개월여 동안 대회 유치를 위해 대륙별 해외유치활동에 발 벗고 나서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고, 정치권과 정부, 민간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펼쳐온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정부차원에서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활동이 보태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만들어낸 협업의 성과물로 꼽히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와 관련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는 한국스카우트 100년의 역사적 의미도 담겨있는 대회"라며 "스카우트 정신을 통해 글로벌 리더들로 성장할 전 세계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새만금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중앙정부와 함께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구축 등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높여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미래상을 세계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일요일 신문 읽는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 소감

"국가의 역할 재정립한 100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소감으로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 치밀하게 준비할 것 기초적 국민생활분야서 국가 책임 더 높일 것"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종합대책 등 주요 새 정부 정책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주시의회 해외연수 '보류'

전북도의회에 이어 전주시의회도 해외연수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17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다음달로 예정돼 있던 해외연수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연수를 가지 않기로 했다.

이번 시의회의 보류 결정은 여론의 못매를 맞았던 '충북도의회 외유성 해외연수'와 최근 지역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검찰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 수사 확대 등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2017 전북 방문의 해, 장수

제11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2017.9.22(금) ~ 9.24(일)
전라북도 장수군 의암공원 및 장수군 일원

장수한우마당, 사과박시체험, 깃털놀이, 토마토속 '함금반지를 찾아라!', 전국 한우 곤포나르기 대회, 사과의洞窟, 애플푸차 체험

주최 | 장수군 | 주관 | (사)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등